

<2021년 11월 12일 금요일 새벽, 주 말씀>

* 새벽 설교를 할 때는

항상 <주일말씀 주제>를 먼저 읽고 인식시켜 주고,
그다음에 <잠언>을 전해 줘야 된다.

모두 금주 말씀에서 나온 잠언들이니,

<주제>를 생각하면서 들어야 ‘그에 해당되게’ 깨닫는다.

* 설교자는 <잠언>을 읽어주기만 하지 말고,

잠언을 한 절, 한 절 풀고 해석해 주면서 설교해 주어야 한다.

1. <가치>를 알아야 좋아서 행하게 되고, 쉬지 않고 행하게 되고,
고생돼도 행하게 된다.

2. <기도>도 ‘가치’를 깨닫고 알아야, 매일 좋아하며 기도하게 된다.

3. <기도>는 매일 ‘똑같은 내용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, 할 때마다 ‘다른 내용’으로 해야 된다. 매일 <새로운 생명>을 전도해 오듯이, 매일 <자기가 좋아하는 작품 소나무>를 사 오듯이, 매일 <자기가 좋아하는 수석>을 주워 오듯이, 기도도 할 때마다 <기도의 내용>을 다르게 해야 더욱 ‘가치’를 깨닫고 좋아하며 기도하게 된다.

4. <수석의 전문가>가 되면, ‘비슷한 돌’을 사거나 주워오지 않

고, 개성대로 좋은 색과 모양의 ‘다른 돌들’ 만 수집한다. 이와 같이 <기도의 전문가>가 되면, 매일 ‘여러 가지’ 를 두고 각자
으로 기도한다.

5. 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삼위를 믿고 사랑하면서 살게 해 주신 것>은 ‘전지전능하신 삼위가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’ 이다. 이는 ‘영원한 축복’ 이다. 영이 황금천국에 가서 ‘전능자 삼위일체’ 를 사랑하면서 영원토록 살기 때문이다.

6. <가치>를 알아야 기쁘고 좋고, 마음도 생각도 몸도 ‘삼위의 극적인 사랑’ 을 느끼고 흥분되어 행복하게 살게 된다.

7. 어떤 자가 <수석>이 좋다는 말을 듣고, 여러 해 동안 강에서 ‘수석 수십 개’ 를 주웠다. 그중 한 개가 ‘전설에 얹힌 수석’ 이었는데, 주인은 그것을 모르고 ‘보통 것’ 으로 보고 살았다. 그러다 수석 전시회에 ‘그 수석’ 을 전시해 놓았는데, 전문가를 통해 수석의 가격이 ‘수십억’ 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. 주인은 그때부터 ‘그 수석’ 만 사랑하고 좋아하고 자랑하며 살게 됐다.

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<기도가 얼마나 귀한지>는 기도하여 받고 누리는 자’ 만 느끼고 안다. 그들이 ‘기도가 얼마나 좋은지’ 말을 해 준다.

8. <운동>도 처음에는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른다. 본인이 전문적으로 운동해서 ‘건강’ 해지고, ‘몸의 형체’ 가 아름답게 되고, 대회

에 나가서 우승도 하고 모든 자들이 부러워하면, 그제야 ‘운동의 가치’를 깨닫고 매일 운동한다.

이와 같이 <기도>도 그냥 보면, 왜 좋은지 이해도 안 되고 ‘가치’도 모른다. 주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, 이론적으로 알고 기도하게 된다. 본인이 전문적으로 기도하여 <자기 생명>을 얻고, <각종 축복>을 받아야, ‘기도의 가치’를 알게 되어 매일 기도한다.

9. 매일 <기도>하면, 매일 ‘기도의 희열’을 느끼게 되니 기도하지 않고서는 못 견딘다. <등산을 좋아하는 사람>이 눈보라와 비바람이 쳐도 산을 오르듯이,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게 된다.

10. 저마다 <자기가 좋아하는 것>은 ‘중독’이 되어 한다. <기도>는 ‘중독’이 되어도 병이 없고, 이상적이다.

11. 매일 <다른 주관권의 기도>, <다른 단계의 기도>를 할 줄 아는 사람은 ‘기도의 전문가가 된 자’다.